

# “합평 골프고 실습장 설치 적극 나서 달라”

### 전남도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여수국제교육원 설립·잡월드 유치도 건의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만나 산적한 교육 정책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오후 본청 상황실에서 3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이영주·손금주·황주홍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당선인,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공통 교육 현안으로 ▲대학입시 제도 개선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 수시 모집 확대와 대학이 적용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또 지역 현안인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국제교육원·합평골프고 실습장 신설 ▲잡월드 유치 등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합평골프고 교육용 골프실습장(18홀) 설치사업의 경우 학생 전용 골프실습장 부재, 장거리 고난이도 실습 코스 가 없는 데 따른 남자선수 육성의 한계 등을 감안,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골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골프실습장’ 설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점을 내세워 교육부(100억)와 다른 부처 등에서 300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골프장 설립 사업계획을 올렸다.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여수시가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점을 활용, 여수시 3청사(205억원 상당)를 무상 제공하며 조성키로 했던 가정 여수국제교육원 설립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애초 운영·인건비 확보 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데다, 사업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세워 최근 열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판단을 내렸다.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현재와 같은 임시정책으로는 농어촌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또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과 원내대표 회동에서(국가의 책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면서 “3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의 긴급회동에서 민생 점검회의를 열어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1일 오후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전남교육 정책설명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왼쪽)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청년들 시정 참여 기회 넓힌다

### 광주시 각종 위원회 10% 보장

광주시가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위원에 10% 이상은 청년으로 채워진다는 방침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과의 소통과 협업의 기회를 늘리고 미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10%이상의 청년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중·장년층 중심의 동 단위 주민자치활동에 청년위원 참여를 권고하는 등 지역공동체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위원의 참여비율을 관련 조례 등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청년단체 등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실무 검토 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발주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사업의 특성과 내용 등을 고려해 청년창업자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윤장현 시장은 최근 청년이 당당한 시민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2일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 등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시정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윤장현 광주시장 싱가포르·인니 메단시 방문 출국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역 기업 수출 협약과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메단시를 방문한다.

윤 시장은 24일 싱가포르에서 로봇형 노면청소기를 생산하는 (주)드림씨엔지와 신개념 미니하우스를 제작하는 (주)이솔테크 등 광주지역 2개 기업과 동남아 기업 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협약을 체결한다.

또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등 현지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1997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 내년에 자매결연 20주년을 맞는 인도네시아 메단시를 방문해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그동안 교류 현황을 점검한 후 경제·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2일 “광주시장 일행의 메단시 방문은 2005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내달부터 가든형 식당 오리 도축 못한다

### 전남도,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소비자 안전 먹거리 제공 자가 도축 허용대상 가축 6종으로 ... 오리식당 ‘비상’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의 하나로 오는 6월 1일부터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하는 오리, 거위를 직접 자가 도축·조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리를 키워서 직접 도축해 조리하고 있는 상당수 전남지역 가든형 식당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2일 “최근 경기도 광주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한 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 전국 시·도에서 제정해 운용 중인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를 개정, 대상 가축에서 오리와 거위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과거 자가 도축 허용 대상 가축을 닭, 오

리, 사슴, 거위, 칠면조, 토끼, 메추리, 꿩 등 8종에서 오리, 거위를 제외한 6종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 대상 지역 역시 주로 도서 산간·농촌 지역 228개 읍·면·동 2444개소(마을)에서 그동안 변경된 행정동을 반영해 240개 읍·면·동 2446개소로 조정했다.

그동안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는 소, 돼지 등 주요 가축을 제외한 8종에 대해 도사산간 지역 도축 관련 애로사항을 반영, 가축의 소유자가 가든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이 아닌 장소에서 자가 도축·조리해 판매할 수 있도록 2004년 2월부터 시행해왔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앞으로 이 고시지역 내 가든형 식당에서는 오리·거위에 대해 자가 도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출하된 식육을 가공장 및 식육판매장 등에서 구입해 조리·판매해야 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전남의 오리 사육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오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강화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6월부터 고시지역 내 가든형 식당 등에서 오리, 거위를 자가 도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농번기철 가사 부담 경감 전남도 마을공동급식 확대

전남도는 올해 농번기철 바쁜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여수시 등 19개 시·군 759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급식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사업은 이앙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철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연간 25일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급식 대상 마을은 마을회관 등에 급식 시설을 갖추고, 농업인과 가족 등 20명 이상이 급식 가능한 곳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759개 마을을 확정했다.

2014년 하반기 처음으로 순천, 나주, 고흥, 해남 등 9개 시·군 253개 마을에서 15일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으며, 전남도는 2018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귀농귀촌인 2만가구 유치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전남도가 도정 역점 정책 가운데 하나인 ‘귀농귀촌인 2만가구 유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2만가구 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연선 의원(신안)이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전남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해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귀여인을 포함한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각 운영해오던 귀농인, 귀여인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했다.

또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사후관리,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4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22개 시·군 전체의 귀농, 귀어, 귀촌 전 과정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수도권 도시민 유치·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 녹내장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건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서서히 진행되어 실명에 도달하는 무서운 질환

◎ 치료 방법 : 약물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일반적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만족할 만한 안압하강 효과가 없는 경우 레이저 치료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과목 : 스마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법무법인 맥 설립인사**

그동안 각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뜻을 모아 ‘법무법인 맥(脈)’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반 소송업무(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뿐만 아니라 기업법률 자문분야 등에서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분야**

- 민사/가사/행정 소송
- 형사소송/수사 대응
- 기업법률자문/기업회생·파산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 행정심판/조세심판/소청심사

**대표변호사** 조재건 서정암 문방진 노로 권오성 울림

**주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법무법인 맥 빌딩 · 전화 062)236-4000  
**순천분사무소** ▶ 전남 순천시 황지로 30, 거형빌딩 202호 · 전화 061)727-7099 · 팩스 061)721-4552

**구성원 변호사**

**조재건**  
사법연수원 24기  
전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정암**  
사법연수원 26기  
전 광주고법 판사

**문방진**  
사법연수원 26기  
전 장흥지원장

**노로**  
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검 검사

**권오성**  
사법연수원 33기  
전 광주지검 검사

**소속 변호사**

윤철호 (서울대 법학과, 사사45회)  
박충배 (서울대 철학과, 변시 1회)  
김경욱 (전남대 법학과, 변시 1회)  
민양이 (경희대 정외과, 변시 3회)  
정은혜 (연세대 법학과, 변시 3회)  
류노엘 (조선대 법학과, 변시 4회)  
정찬욱 (경향대, 변시 4회)